

서옥석 과장 /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금과

# 친환경 양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 1. 사회와 소비자가 친환경축산물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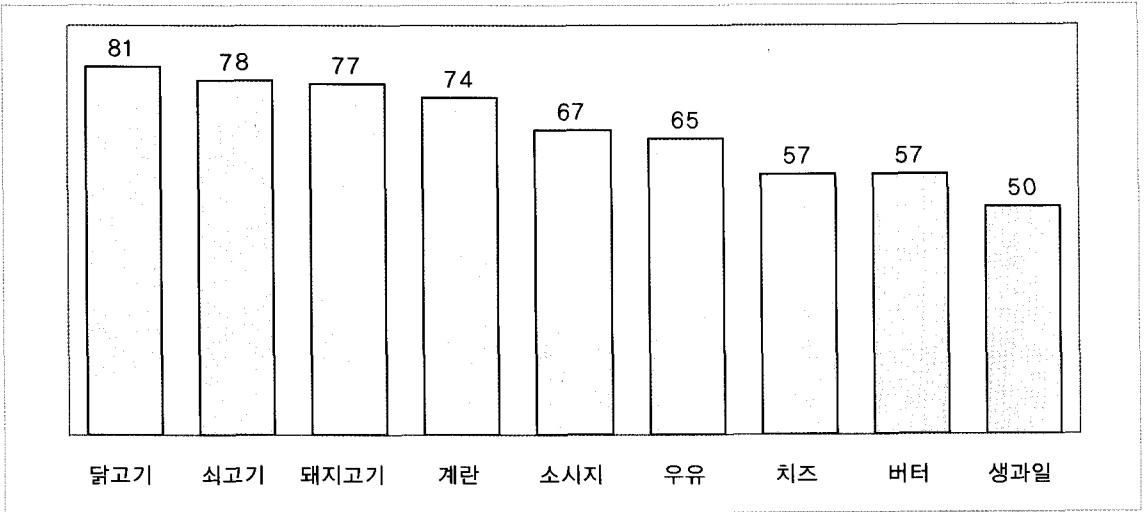
모든 것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일까. 농산업 분야 종사자의 일원으로서 잠시나마 여러 채널에 귀 기울여 들은 바를 정리해 본다.

우선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무엇이나 하는 것부터 살펴보자. 첫 번째는 글로벌화로 인해 야기되는 무한경쟁의 분위기, 두 번째는 농어촌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 세 번째로는 자연재해 증가와 자원 및 에너지의 고갈문제,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식품선택 기준이 가격과 양 중심에서 품질과 안전성 중심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농정 당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상 열거한 도전들이 제공하게 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그 내용은 국제교역이 확대되면서 주변국들이 신흥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고부가 건강기능성 식품시장의 확대,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등이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라는 선언을 정책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값싸게, 빠르게, 많게'라는 용어로 설명되는 양적인 성장에 익숙해져 있는 양계분야로서는 상당히 큰 폭의 궤도수정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기

〈그림 1〉 여러 품목 중 품질등급표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유럽소비자 수



※스위스 가금학회 동계심포지엄(2007년도)

〈표 1〉 EU 지역의 산란계 사육방식 변화(%)

사육방식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케이지	45.1	45.3	46.5	40.1	35.9
부분방사	20.8	22.7	21.8	24.9	32.8
단순방목	27.6	20.6	17.9	18	14.6
유기방목	6.5	11.4	13.8	17	16.7

※스위스 가금학회 동계심포지엄(2007년도)

도 하다.

〈그림 1〉은 스위스 가금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이다. 유럽의 소비자들에게 다음의 여러 가지 식품 중에서 품질등급표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설문을 했는데 그 중 닭고기가 가장 높게 나왔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5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1점을 주는 '5점 척도' 방식으로 점수를 매겨달라는 주최측의 부탁에 대해 유럽인 응답자중 81명이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닭고기의 품질등급표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쇠고기 78명, 돼지고기 77명, 계란 74명 이런 순이다. 닭고기의 품질등급 표시를 중요하게 생각한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 애정인지 불신인지 자못 궁금하다.

헌데 여기에서 먼저 밝혀둘 것은 본 조사결과에서 이야기하는 품질등급이란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1등급', '2등급'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육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넓은 운동장에서 키워낸 닭인지, 좁은 계사에서 고밀도로 키운 것인지 하는 사육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표 1〉은 역시 스위스 가금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이다. 산란계의 경우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가두어 기르는 방식이 크게 줄어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평당 산육량 100kg 정도를 목표의 고밀도 사육일변도인 우리로서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태도를 보면 친환경 식품을 생산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대두될 전망이다. 소위 웰빙(Well-Being) 바람과 함께 구제역,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파동 등을 연이어 겪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건강'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이라 생각하면 조금 비싸더라도 무공해로 키운 식품에 손을 내밀겠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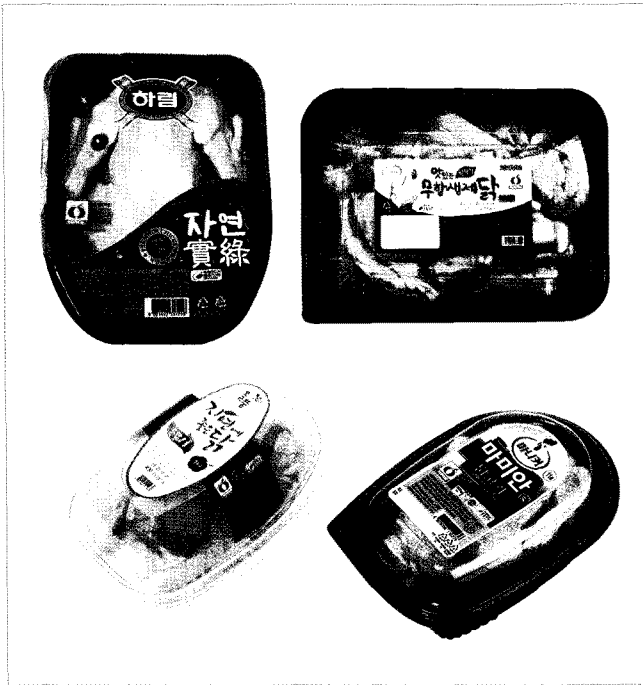
생산자도 빨리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짜증스럽고 고통일 수도 있으나 산업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저 넘겨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행복의 조건 중 으뜸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또는 적응적 방어기제(adaptive defense mechanisms)라는 사실을 주창하는 이가 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조지 베일런트 교수이다. 그는 하버드대학교가 1937년도에 시작해서 70년이 넘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하버드대학교 성인발달 연구'의 책임자이다. 1967년부터 이 연구를 맡아온 베일런트 교수는 '행복은 결국 사람'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눈앞에 닥쳐온 일과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말일 것이다. 고리타분한 훈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평생토록 밀착 조사한 것에 전문가의 통찰을 더해 얻은 결론이다.

## 2. 친환경축산 성립을 위한 5가지 조건

- 친환경축산은 자원순환을 요구한다. 자원순환이란 땅에서 거둔 식물이 가축의 생산재로 쓰이고 가축의 몸에서 나온 분뇨가 거름으로 토양에 뿌려지는 방식, 다시 말해서 경종과 가축이 먹이사슬과 같이 상호보완적으로 돌고 도는 방식을 말한다.
- 친환경축산은 환경보전을 요구한다. 축산업이 수질·토양 오염 및 악취발생, 대기오염을 일으켜서는 안 되므로 이에 필요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친환경축산은 가축의 건강을 요구한다. 가축의 성장과 번식과정에서의 행동특성을 만족시키는 좋은 사육환경을 제공하여 가축의 건강성을 유지시킴으로써 질병발생을 저감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축 생활공간을 제공해주고 제반 관리도 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 친환경축산은 경관보전을 요구한다.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더불어 농촌다움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목장구성요소인 진입로, 축사 내·외부, 퇴비사 등의 환경미화는 물론 지역사회 및 소비자와의 조화도 필요하다.
- 친환경축산은 건실한 경영관리를 요구한다. 경영자의 친환경축산 실천의지와 양과 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농장의 관리

〈그림 1〉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닭고기 제품들



효율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위생·질병 관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토양환원, 가축의 사양관리 등과 관련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친환경축산 관련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3. 친환경양계 인증 현황

우리나라는 2005년 5월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유기축산인증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6년 9월 27일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되고 2007년 3월 28일 시행규칙이 발효되면서 무항생제축산물이 친환경축산물의 한 범주로서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2008년도 말 기준 인증

을 받은 농가는 유기양계의 경우 육계 18농가, 산란계 26농가이며 무항생제 인증양계의 경우 육계 228호, 산란계 436호이다. 인증을 받은 농가수는 그렇다 치고 사육수로 볼 때 총 3만6천수로서 전체의 0.03%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육계생산은 80% 이상이 계열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이 인증을 받고 안 받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친환경 양계산물 생산에 관한 절대적 의사결정권이 계열주체에 속해있는 현실이라면 정책의 방향도 여기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 4. 가축복지에 관한 문제

현대적 의미의 동물복지 개념은 1979년 영국의 FAWC(Animal Welfare Council)가 5개항의 자유를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비롯되었다(Appleby and Hughes, 1997). 그 내용은 기아와 목마름으로부터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공포와 곤궁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영국은 이를 근간으로 1996년 동물복지법을 제정했다.

친환경축산의 조건 가운데 가장 진도가 느린 것이 가축복지 분야이다. 그 원인은 아마도 가축복지 기준에 걸맞는 방식으로 키워지고 생산된 축산물의 품질이 투자된 것만큼의 품질향상 효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도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 영국의 Monica와 Schroder라는 두 학자가 2004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는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제품이 동물복지 요건을 충족하기를 원하나 그 축산물을 비싼 값으로 사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물복지에 지불하는 경제적 비용에 비해 소비자가 느끼는 내·외적 품질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규격기구(ISO)의 품질 관리기준(BS EN ISO 9000)이 ‘동물복지는 품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품질결정 요소로서의 동물복지를 논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참 어렵다. 축산물의 품질은 크게 내적 품질과 외적 품질로 나뉘어진다. 내적 품질이란 고유의 특성으로서 고기의 색깔, 지방부착도, 질감 정도 등을 말하며, 외적 품질이란 사회 문화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브랜드, 품질인증표시, 라벨링, 동물복지 등과 같은 고유의 품질 이외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Issanchou, 1996).

동물복지는 소비자의 윤리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다. 동물복지는 축산물 생산방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생산방식 차이는 최종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품질요소로서의 동물복지는 내적 품질보다는 외적 품질로 접근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Grunert et al., 2004).

외적 품질은 소비자의 믿음에 의해 그 가치

가 결정되며 그 특성상 소비 전, 후에 확인이 어렵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매장에서 축산물을 구입할 때에 내적 품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 5. 친환경 축산의 전망과 대응책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질 것이다. 국내 생산이 안되면 유수의 식품업체는 해외수입을 망설이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현장에서 생산기반이 속속 갖추어져야 한다.

확실한 결과를 나타내는 기술의 개발도 시급하다. 무항생제 닭고기의 경우만 보더라도 무항생제 대체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종자, 시설, 환경, 방역 등 연관기술이 잘 조화되어 닭이 건실한 면역성을 발휘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

제대로 생산된 친환경양계산물이 소비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문제도 중요하다. 적절한 유통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가축복지는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제거래에서 유리한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가 축산물의 품질개선과 직결되고 불필요한 수준에서 생산비를 가중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준비하고 노력하는 생산자, 관용적 태도를 지닌 소비자, 긴밀하게 움직이는 정책자가 필요하다. 